11

제20150호

여수, 청렴도시·기업하기 좋은 도시 발돋움

청렴도 평가 전남도내 1위…반부패 특별대책 강화 주효 투자유치 활동 평가 '대상'…올 34개 기업 3조원대 유치

국제해양관광 중심도시 여수시가 민선 6기들어 청렴 도시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로 거듭나고 있다.

28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여수시는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전남도의 청렴도 평가 에서 도내 1위에 올랐다. 또 2015년 전남 도 시·군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에서 대상에 선정되는 등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의 명성도 얻었다.

실제 여수시는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 가 발표한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8.11점(10점 만점 기준)을 받아 전남 22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했다. 전국 157개 시· 군 중에서도 최상위권인 10위에 올랐다.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가 공사와 인·허가, 보조금 지원, 재정·세정 등 14개 분야에 대한 민원인의 외부 평가와 조직 문화, 징계·처벌·인사·예산 등에 대한 공 무원의 내부평가를 통해 측정한 것이다.

또 정책에 대한 고객 평가 설문조사와 부 패공직자 발생 현황, 신뢰도 저해 행위 등 도 이번 평가에 반영됐다.

특히 올해 청렴도 1위 달성의 성과는 지 난 2012년 한 직원의 80억원 공금횡령 사 건으로 '80억 횡령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청렴도 분야에서 전남지역 최하위권인 17 위까지 추락한 과거를 극복한 것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여수시의 청렴도 상위권 회복에는 민선 6기 출범과 동시에 반부패 청렴 특별대책 인 시민공무원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친절도와 청렴도 정책을 강화한 것이 주 효했다는 평가다.

여수시는 실제 청렴 교육과 청렴 방송, 청렴 도서 읽기 등 청렴 생활화에 주력한 것 은 물론 공사발주와 인·허가, 청렴계약이 행 서약제와 수의계약 순번제 준수, 청렴 각서 교부, 전 직원 청렴 실천서약과 자기진

단 등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외부 청 렴도 향상과 청렴 문화 정착을 일궈냈다.

김두인 여수시 안전행정국장은 "그동안 부패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확립, 시민공무원평가 제 시행,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시민위원 회 운영, 시장 직통 SNS 신문고 및 시민의 소리 당부 말씀 등 수많은 고강도 공직개 혁 운동을 펼쳐왔다"고 밝혔다.

청렴도시로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한 여 수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도 거듭나고 있다. 여수시는 올해 전남도에서 도내 22 개 시·군을 대상으로 투자협약(MOU) 체 결과 투자 실적, 투자기업 사후관리 등 올 한해 투자유치 활동사항을 종합 검토한 평 가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전담부 서인 투자유치과를 중심으로 1실과 1기업 투자유치 운동을 벌이는 등 전 직원을 투 자유치 요원으로 활용해 적극적인 투자 상 담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 로 알려졌다.

또 국내 기업은 물론 싱가포르와 중국

등 외국 기업을 초청해 9차례에 걸쳐 투자 환경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물론, 유럽과 중국 등 해외기업을 직접 찾아 국외 투자 유치 활동을 활발하게 펼친 점도 이번 수 상에 힘을 보탰다.

여수

여수시는 올해에만 산단 6개 기업을 포 학한 제조업과 관광개발 분야 등에서 34 개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 총 3조 5692억원 의 투자유치와 함께 2579명의 고용을 창 출하는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시는 특히 산단 18개 기업과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과 5년 연속 무분규를 달성 해 노사민정 협력부분 정부평가에서 국무 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2300여 공직자와 함께 청렴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 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면서 "올해 성과를 발판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 출과 투자유치 활성화 정책 등을 강화해 시민이 살기좋은 국제해양관광 중심도시 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소원을 빌어봐~ 향일암 일출제 행사 다채

한려수도의 아름다운 바다와 다도해 를 배경으로 2016년 새해를 맞이하는 여수향일암 일출제 행사가 다채롭게 열 린다.

여수시는 28일 "전국 4대 해돋이 명소 인 여수 향일암에서 31일부터 내년 1월 1 일까지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제20회 여 수향일암일출제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또 향일암 일출제에 따른 관 광객 집중과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돌산공원과 오동도, 만성리해수욕장, 자 산공원, 웅천친수공원, 종고산, 구봉산, 고락산, 안심산 등 지역 내 일출명소 23 곳에서 분산 일출제를 동시에 추진하기

또 내년 1월 1일 아침 선상일출 관람을 위해 돌산대교와 오동도, 여객선터미널, 소호요트장 선착장에서 향일암까지 부 정기 여객선 및 관광유람선도 운항한다.

향일암 일출제는 31일 오후 8시 3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축하공연, 탐방객 어 울마당,희망2016 개막퍼포먼스 등 다양 한 행사도 마련된다.

특히 새해가 떠오르는 내년 1월 1일 오전 6시부터 진행되는 일출행사에는 모듬북 공연, 일출기원 제례가 돌산향교 주관으로 열린다.

한편 여수시는 행사 기간 원활한 교통 통제를 위해 행사장 주변에 임시 주차공 간을 확보하는 한편 불법 주차 행위 등 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행사장 내에는 차량출입이 통제된다.

또 일출장으로 향하는 돌산 임포방면 노선버스를 확대 운영하고, 국립공원주 차장~죽포삼거리를 왕복 운행하는 셔 틀버스 10대를 투입할 계획이다.

일출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여수 시 관광정보(www.ystour.kr/kr/fes→ tival/hyangilam.jsp)를 참고하거나, 여수시 관광과 축제지원팀(061-659-474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박종환 여수경영인협회장 취임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 힘쓸 것"

박종환 제7대 (사)여수경영인협회장이 취임식(사진)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다.

여수 히든베이 특급호텔에서 지난 21일 열린 (사)여수경영인협회장 취임식에서 박종환 신임 회장은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는 회원들의 단합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 히 임기동안 신규 투자와 고용창출 등 실 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협회를 만들어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

사단법인 여수경영인협회는 지난 1997 년 삼려경영인협의회로 출발해 지난 2005

년 사단법인 여수경영인협회로 협회명을 변경한 뒤 현재까지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경영환경 개선, 지역 친화기업 육성, 건전 한 여론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한편 여수경영인협회는 이날 신임 회장 취임식의 축하 화환을 사절하는 대신 쌀로 받아 노인요양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마니 원에 기부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시 노사민정 협력시책 국무총리상



이승옥 여수시 부시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23일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2015 노사문화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과 함께 포상금 2500만원을 받고 있다.

여수시가 노·사·민·정 협력시책 분 야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예 를 안았다.

28일 여수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2015 노사문 화 유공 정부포상 시상에서 여수시 노 사민정협력 시책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개인 유공분야에서도 여수시노사 민정실무협의회 위원장인 황인팔 여 수산단건설업협의회 사무국장이 국 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앞서 여수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 한 2015년 노·사·민·정 협력사업 평 가에서도 전국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여수시는 올해 '노사안정을 통한 기 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시정 목표 로 정하고, 노사관계 선진화에 주력하 는 한편 노사민정이 한뜻으로 고용증 진에 앞장서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왔다.

이승옥 여수시 부시장은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사민정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한 성과물"이라면 서 "앞으로도 민선 6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노사민정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경찰 치안 종합성과 전남 최우수

여수경찰이 치안종합성과 평가에 서 전남 최우수 경찰로 선정됐다.

28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2015년도 전남지방경찰청 치안종합성과 우수 경찰관서 최종평가에서 전남 21개 경 찰서 중 여수경찰서가 1위를 차지했 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이번 최우수 경 찰서 선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해 10월 말까지 1년 동안 수사·형사 다.

특히 이번 평가에선 정책홍보 종합 실적과 4대 사회악 근절활동, 수사업 무 종합평가, 피해자 보호활동 등 13 개 항목에 대한 성과실적과 각 경찰서 의 성과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수 상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여수경찰은 또 경찰에 대한 점수를 시민들이 직접 매기는 치안만족도 평 가에서 지난 2년동안 21위를 기록했



지만, 올해 평가에 서는 무려 14단계 나 오른 7위를 차지 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박병동(사진) 여 수경찰서장은 "500

여 여수경찰 직원들과 한마음으로 시 민안전을 위한 치안서비스 확립에 밤 낮없이 주력해 온 덕분에 이런 뜻깊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민을 위한 최 고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

한편 치안종합성과 평가는 전남청 등 전국 16개청이 우수 성과를 올린 일선 경찰서를 선발·포상해 대국민 치안서비스 확립을 위한 동기부여 등 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12월 실시하고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